

오월광주 정신 담은 ‘오브제 연극’ 무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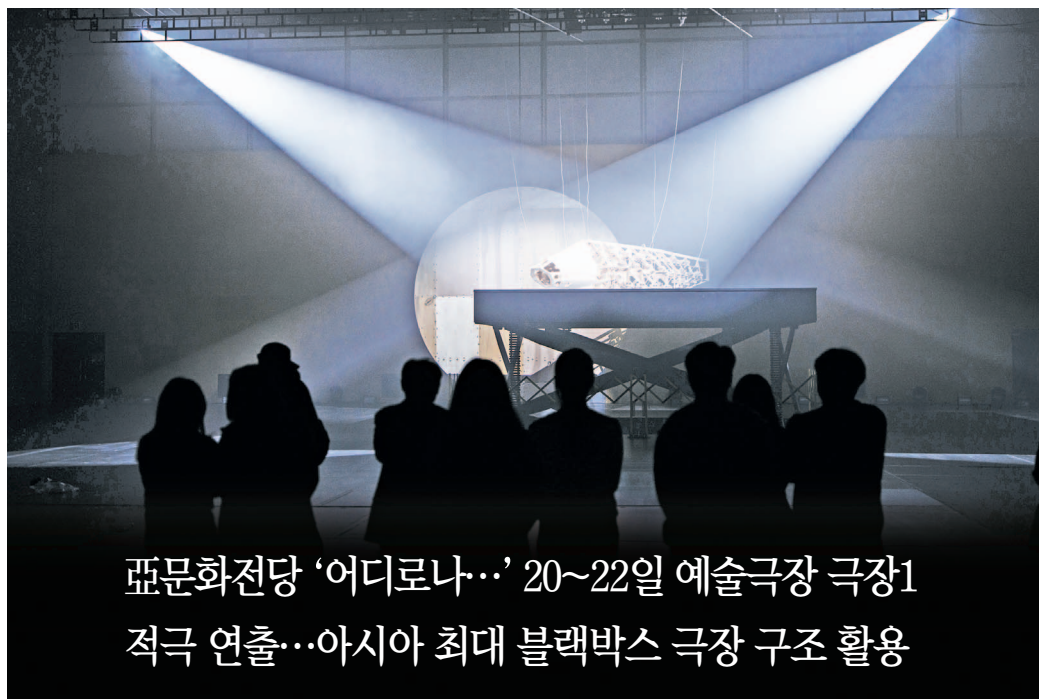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오월 광주 정신을 담은 오브제 연극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선보인다.

‘오브제 연극’은 전통적인 드라마 중심의 연극에서 벗어나 대사 없이 오브제와 퍼포머의 움직임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의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적극 연출가의 작품으로, ACC는 지난해 ‘사물의 계보’를 주제로 ‘아시아 콘텐츠 공연개발’ 공모를 통해 연출가를 선정했다.

‘사물의 계보’는 사물에 부여된 기존의 정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보려는 시도다. 적극 연출가는 과거 무대에 등장했던 오브제를 새로운 맥락에서 지켜보는 일종의 ‘사물의 계보’를 찾아나가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 시범 공연을 거쳐 올해 본 공연으로 제작된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는 오월 광주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기존의 언어로 재현하기보다 이미지, 신화, 문학 등 다양한 파편들을 층층이 쌓아 구성함으로써 감각적이고 근원적인 언어로 접근한다. 오월 광주가 단일한 언어로는 포착될 수 없는 사건임을 인정하고 광주 정신이 어디로나 흐를 수 있다는 예술적 시도를 담았다.

특히 작품은 전지창조 7일을 형식적 틀로 차용



ACC문화전당 ‘어디로나...’ 20~22일 예술극장 극장1 적극 연출...아시아 최대 블랙박스 극장 구조 활용

하고 있다. 창조의 1일부터 7일까지를 각각의 막으로 하고, 종말 1~7일까지를 함축적으로 담은 마지막 1막을 합쳐 총 8막으로 구성했다.

극은 창세기가 제시하는 창조의 시간에 따라 흘러가며 극장은 다양한 오브제들과 오브제와 호흡하는 퍼포머들의 움직임으로 채워진다. 이 오브제들은 오월 광주의 희생과 죽음, 파괴의 이미지를

암시한다. 창조와 종말, 생명과 죽음이라는 대립적 요소들의 일치가 존재하는 극장에서 관객들은 그 간극을 배회하며 오월 광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각하게 된다.

마지막 8막은 1~7막을 통해 누적된 오브제들을 극장 밖으로 철수시키는 행위가 역순으로 진행되며 관객은 텅 빈 극장 안에 머물게 된다.

공연은 고정된 객석 없이 관객이 극장 공간을 직접 이동하며 관람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아시아 최대 블랙박스 극장인 ACC 예술극장의 블랙박스 구조를 최대한 활용한 방식으로, 관객은 이 블랙박스의 고유한 공간성과 결합한 공연을 통해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공연에는 연극, 무용, 음악 분야의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한다. 퍼포머 김용빈, 임영, 정나원, 최도혁씨와 ACC 시즌 예술인 배우 7명이 오브제와의 움직임을 선보인다.

음악은 전통음악, 현대음악,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이 어우러져 8막의 연극이자 8막의 음악극을 완성한다. 김복만, 안성시, 립남사당, 바우덕이, 품물단, 예술감독과 국악 연주자 김성근, 전남도립국악단 단원 14명이 사물놀이, 현악, 가창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다.

김상욱 전당장은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는 연극·음악·미술이 결합된 총체적 예술이며, 5월 광주를 다시 감각하는 예술적 시도로 관객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질 것”이라면서 “공감각적인 시 한 편을 읽듯 공연을 관람하며 각자의 해석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13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예매는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입장료는 전석 2만원. 김다경 기자 alsjd194@gwangnam.co.kr

CULTURE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인문·예술·테크놀로지축제 열린다

14일 오후 5시 5·18민주광장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은 ‘2025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한 축제를 오는 14일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 진행한다. 9일 밝혔다.

‘로컬: 뿌리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축제는 토크쇼&공연을 비롯해 부스, 드로잉 등이 운영되며 드로·잇 로컬 및 전통공연 퍼포먼스, 인문사회학자·시인·그림책 작가의 토크, LED 모듬북 퍼포먼스, 실용무용, 한국무용, 발레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AI와 예술의 만남, 그리고 인문과 환경의 만남인 그린-잇 로컬 등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지난해까지 시도한 4회차와 다른 새로운 문화적 움직임을 예고한 이번 축제는 지역의 삶에서 깊어 올린 가치들이 문화로 피어나고, 다시 도시 전반에 퍼지는 흐름을 담아낸다는 큰 그림을 내놔다.

특히 지역과 사람, 그리고 예술이 교차하는 이번 축제는 지역의 문화기술을 더해 ‘인문·예술·테크놀로지’라는 융복합의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광주시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예술 장르와 기술, 환경이 만나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문의 062-234-2727. 김다경 기자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동경의 ‘시심’

박준수 시집 ‘황금물고기를 보았네’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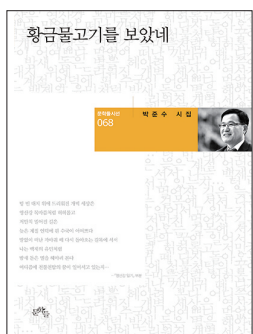
박준수 시인이 신작 시집 ‘황금물고기를 보았네’(문학출판)를 펴냈다.

그동안 태생적 삶의 뼈아픈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아픔을 직시하면서 영원한 사랑과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동경의 시심을 지켜온 시인은 시 ‘실려 가는 나무’를 통해 근원이 뿌리째 뽑히는 현실 속 굳은 심지의 균열과 강단진 삶의 회청거림에 대한 근심을 드러낸다.

실려 가는 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로 보는 시인은 삶의 자리가 통째 바뀌는 것을 목도한다. 시인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식재돼 지금까지 발을 뻗고 살던 대지에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현대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노출한다.

시인은 ‘실려 가는 나무’를 통해 ‘붕괴로 갈뿐 뿌리는 먼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암연 속에서 묵상하듯 웅크리고 있다/지하 깊숙한 수맥을 더듬노라/여러 갈래로 뻗은 전뿌리들./자갈과 흙 사이에 흐르는 물을 길어/하늘 높이 퍼 올리던 역센 팔뚝에는 힘줄이 전선 가닥처럼/매듭져 있다’고 노래한다.

특히 관찰을 바탕으로 한 총총한 묘사가 돋보인다. 시인의 관심은 이제 나무가 떠나는 자리에 이동한다. 그리고 시적 상념의 나라가 펼쳐진다. ‘그가 떠난 후 이장한 무덤처럼 황량한 빈 구멍이여/바람이 떨어진 나뭇잎들을 모아 흙의 속살을 덮어 준다/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선 그 자리에/매일 아침 말뚝이 되어주던 새들은 어디로 날아갔



을까/하루 노동을 마치고 가지 끝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던 노을은/이제 빈 들판을 붉게 물들일 것이다’고 읊는다.

이 시에서 말할 것도 없이 나무와 새는 인생의 비유다. 나무가 떠나온 자리, 곧 ‘빈 구멍이’를 통해 시인은 생명 있는 것들의 ‘터전’이 지닌 의미를 궁구한다.

이어 시 ‘왓 체디 루영 사원의 새’에서는 태국 치앙마이와 오래된 사원의 새를 통해 “새들의 고향” 곧 ‘터전’을 바라보고 꿈꾼다.

시인은 ‘커다란 보리수나무 위에서 탑을 향해 날아갈 때/그들은 일제히 신비한 노래를 불렀어요/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그 자리에 멈춰서서/한동안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라고 적고 있다.

현실과는 다른, 현실 너머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세계에의 동경이 드러나는 듯하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경계선에서//오늘도 외로운 양치기가 되어 피리를 분다’는 시 ‘디지털 노마드’에서 현실이 고단하고 아플수록 이상을 향한 동경이 지극해진다는 것을 드러낸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사랑으로 키운 ‘길고양이’ 모티브

‘제2회 모루展’ 18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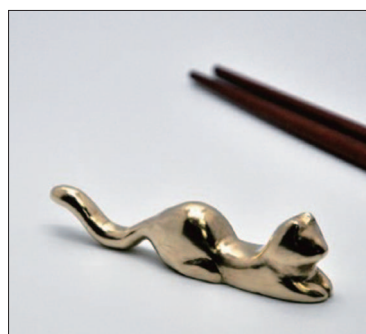
학생들의 사랑으로 키운 길고양이를 모티브로 지난해 6월 ‘모루展’을 기획했던 광주대학교에서 제2회 모루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은 지난 2022년 11월 광주대 극기관 1층 급속공예실에 우연히 발 들인 ‘모루’와 함께 2024년 여름 여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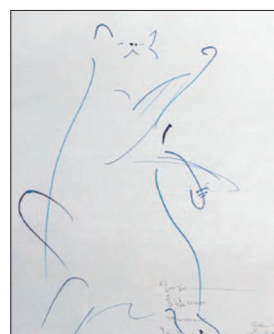
열고 기아자동차 모닝 아래서 죽어가던 아기 고양이를 대학원생들이 발견해 알뜰살뜰 키운 ‘모닝’이가 새 가족으로 합류했다.

‘모루회’(회장 김지은 패션주얼리디자인학과 강사) 주최로 9일 개막, 오는 18일까지 열릴 동안 교내 호심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대학 모든 구성원으로 참가 자격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접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장이 될 전망이다.

전시에서는 ‘Good모닝&모루’를 주제로 반려동물을 위한 용품전과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학생들과 모루&모닝이와의 유대감을 표현하는 작품들부터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다양한 용품이 전시되고 판매되며, 사전



현성주 작 ‘모연’



송숙남 작 ‘행복한 찰나’

접수를 통해 머그컵 꾸미기도 진행됐다.

김지은 회장은 “지난해 ‘반려동물과 집사를 위한 첫 전시’를 통해 많은 반려인이 기쁨과 위로를 받은 바 있다”며 “우연처럼 다가온 두 생명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됐다. 작고 어린 존재들이 전해준 따뜻한 온기, 그 특별한 이야기를 디자인 전시회로 담아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는 반려동물 인구 1300만명 시대를 맞아 전문산업인력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보건산업학과를 신설하고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with-life를 실현하며 반려동물보건과 산업분야를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에 돌입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속도’

국내서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

걸그룹 블랙핑크가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에 돌입하며 완전체 컴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지난 6일부터 국내 모처에서 해외 유명 감독과 함께 신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YG는 “블랙핑크의 정체성과 음악적 색채를 총 집약한 또 하나의 상징적인 뮤직비디오가 탄생할 것”이라며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블랙핑크 위상에 걸맞은 특별한 협업인 만큼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블랙핑크의 신곡 소식은 게임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더 걸스’(THE GIRLS)를 제외하면 지난 2022년 9월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다.

블랙핑크는 오는 7월 경기도 고양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뉴욕, 파리, 런던 등 총 16개 도시에서 31회에 걸쳐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연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2021 건강기능식품 생산 품질관리인증서 획득
그린알로에 인강(베라겔)은 원 재료 유전자 변형 여부를 사법감리되었습니다.
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량(당당) 300mg입니다.

2021 건강기능식품 생산 품질관리인증서 획득
그린알로에 인강(베라겔)은 원 재료 유전자 변형 여부를 사법감리되었습니다.
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량(당당) 300mg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